주간농업 농촌동향	외신동향

2011.08.01 미래정책연구실

❑ USDA, 육류의 식품표시제도 규정 강화

1. USDA, Bloomberg(2011.07.21) 주요 내용

❍ USDA는 소비자들에게 육류의 접종 내역, 양념 여부 등 소비자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 특징들을 보다 분명히 확인할 수 있도록, **기존의 식품표시제도를 강화하는 법안**을 개정, 공표함.

- 미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(USDA FSIS)에 따르면, 기존의 식품표시제도에서는 육가공품에 양념류 등 육류 외의 첨가물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소비자들에게 명확하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,

- 이로 인해, 소비자들은 육류 및 가금육 제품을 소비할 때, 자신이 의도한 것보다 나트륨을 과잉 섭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힘.

❍ 기존 제도 하에서는 육류 및 가금육 제품에 들어간 물·소스·염분 등 모든 첨가물의 내역과 성분 함량을 표시하도록 강제하지는 않았음.

- 예) 기존에는 '닭가슴살 100% 제품'과 '닭가슴살 60%/양념 40% 제품' 모두 동일하게 '닭가슴살'로만 표기했으나, 향후 '닭가슴살 60%, 소스 40% 포함'으로 모든 성분 및 함량 표기 의무화

❍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, 영양성분표시는 이해가 쉽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을 사용해야 하며, **양념 등 첨가물의 성분명과 함유량 일체를 정확하게 표기**해야 함.

- 뿐만 아니라, 성분표시의 글씨체, 글씨크기, 색깔 등 규정된 디자인에 맞추어, 소비자의 눈에 잘 띄게 제품 전면 지정된 위치에 표기해야 함.

❍ 그동안 미국 소비자보호단체 공익과학센터(CSPI: Center for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)는 지속적으로 육류 및 가금육에 대한 식품표시제도 개정을 요구해왔으며, 이에 대해 Bloomberg지는 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이번 법안 개정이 성사되었다고 언급함.